

東北아시아地域 貿易去來의 推移와 展望

吳 星 煥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경제권 형성을 무역거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이 지역내 무역거래의 특성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 30년간 일어났던 한국·일본·미국간의 국제분업체제 전환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 지역경제권내 무역거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취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1. 序 論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東北아시아經濟圈⁽¹⁾의 형성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 하나의 가설로서만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의 가능성과 현실화되었을 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는 참으로 긴급하다 하겠다. 이같은 論議의 背景으로는 첫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을 특징지어 온 냉전체제하의 첨예한 대립양상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世界秩序의 變化로 인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1979년부터의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추진,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라 진행되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노선 및 신사고 의고에 따른 탈이념적인 경제교류의 확대, 소련 및 동구의 민주화운동, 동서독일의 통합 등 동서냉전의 종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탈냉전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동북아 5개국간의 부존자원분포가 천혜의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간의 相互交流 내지는 協力の 圖謀를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중국의 개발의욕, 소련의 극동지역 개발의 필요성, 일본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의 경제구조 조정에 따른 새시장 개척의 필요성 등의 문제들은, 이들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의 분포상의 상호보완적 특성에서 그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1) 엄밀한 의미의 동북아시아경제권은 한국, 일본, 북한,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소련의 극동지역 이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그리고 밑에서 상술할 이유등으로 한국, 일본, 북한, 중국, 소련 등으로 정의한다.

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EC, NAFTA 등의 지역주의적 경제블럭화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구도를 암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에 대한 논의는 시기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의 숙원인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은 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은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증가하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하겠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에 있어서의 여러 측면중에서 경제교류 및 협력의 기본이 되는 國家間 貿易去來를 분석하고 향후 예측 및 대응책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간의 교류가 문화·스포츠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교류를 거쳐 정치적으로 완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간의 무역거래를 분석함은 중차대하다. 물론 경제적 교류의 발전은 정치적 교류를 밀바탕으로 하여 더욱 성숙될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 경제적 동기는 국가간 교류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제원칙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무역거래의 분석의 의미는 가증된다 하겠다.

이같은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충분한 자료의 존재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북아시아 5개국중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공산권 3국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고 존재하는 경우에도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같은 資料의 制約性은 본 연구의 깊이를 처음부터 제한함은 물론이나, 앞서 말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자료의 제약성을 능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의 제한이라는 기본적인 제약하에서 최대한의 분석을 통해 향후 이 지역에서의 무역을 통한 국제분업체계의 방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동북아시아 5개국의 최근 무역거래에서의 동향과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특성을 분석한다. 즉 미시적인 분석보다는 巨視的 分析을 통해 추세와 그 발전가능성의 원인들을 개괄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과거 30년간의 한·미·일 3국의 분업체계와 그 변이를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시아 5국의 국제분업을 통한 향후 경제교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示唆點을 찾고자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의 분업체계상에서의 위상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이 실현될 때 한국의 위상과 한국이 취하여야 할 입장 내지는 方向設定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동북아 5개국의 부존자원 실태와 관련하여 현재 이들 국가들의 무역구조를 微視的으로 분석함으로써, 2장과 3장에서 분석결과와 대비 또는 비교하고자 한다. 이같은 논의는 본 연구가 도출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결론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다. 특히 이 부

문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자료의 미비라는 문제는 사용가능한 모든 직·간접자료를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2장과 3장에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의 정당성을 배가하고자 할 것이다. 끝으로 제 5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들에 의거하여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또한 경제권형성이후 韓國이 취하여야 할 方向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研究方向에 대한 제언이 결어를 대신할 것이다.

2. 東北아시아經濟圈 關聯國들의 交易 現況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엄밀한 의미의 동북아시아지역은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소련의 극동지역을 포함하나, 중국동부 3성과 극동지역만의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소련 등 보다 포괄적인 지역을 동북아시아지역으로 定義한다. 이같은 정의는 특히 蘇聯의 경우 다소의 무리를 결과한다. 이는 소련이 아직 아시아국가이기보다는 유럽국가라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양국의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확한 구분이 다소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포괄적 정의에 대한 회의를 다소 줄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美國의 경우는 비록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일본과의 경제관계 및 미국의 세계전략상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후술할 기타 이유들로 인해, 본 연구는 필요한 경우 미국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表 1>은 동북아시아지역 및 미국의 지난 30년간의 輸出入推移를 나타낸다. 1960~1989년간 세계교역량은 연율 10.7%⁽²⁾로 증가하여 동기간증 약 22.2배로 늘어나는 급신장세를 보였는바 이는 자유진영의 GATT 정신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에 크게 기인한다. <表 1>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동북아시아지역국가중 한국·일본 등과 같은 自由陣營國家들의 교역신장세는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는데 반해, 북한, 소련 등의 共產圈國家들의 교역증가율은 세계교역량증가율에 훨씬 못미쳤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 이전에는 북한·소련 등과 함께 저조한 신장세를 보였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개방정책의 채택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구현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반영하여, 동기간증 수출은 연율 26.0%, 수입은 17.9%라는 급격한 교역증가율을 보여 동기간증 수출은 1,900여배, 수입은 180배에 달하는 놀라운 양적 발전을 기록하였다. 일본도 이 기간중 세계교역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입증가율(수출 14.5%, 수입 13.3%)을 보여 수출규모는 약 68배, 수입규모는 약 47배로 늘어났다. 이같은 한국·일본의 교역

(2) 연증가율은 $[\ln(1989년\ 수출입량) - \ln(1960년\ 수출입량)] / 29$ 로 구하였다.

〈表 1〉 各國의 輸出入 推移

(단위 : 백만달러)

	한 국		일 본		북 한		소 련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60	32.8	343.5	4,055	4,491	—	—	5,562	5,629
1965	175.1	463.4	8,452	8,169	—	—	2,281	2,464
1970	835.5	1,983.3	19,318	18,881	341.0	377.5	3,856	3,644
1975	5,081.0	7,274.4	55,840	57,880	805.9	1,155.3	17,568	12,560
1980	17,504.9	22,291.6	129,812	140,524	1,641.5	1,712.4	32,426	38,789
1985	30,283.1	31,135.7	175,683	129,480	1,285.2	1,899.9	34,705	44,653
1989	62,371.0	61,556.0	274,597	209,635	1,950.0	2,840.0	40,042	57,193

	중 국		미 국		동북아 5개국의 비중		세 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60	1,889	1,764	20,612	15,075	8.78%*	9.06%*	131,492	134,897
1965	1,152	1,337	27,532	21,431	7.29%*	7.10%*	165,500	175,000
1970	1,573	1,499	42,590	39,756	9.31%	8.95%	278,473	294,789
1975	5,924	6,321	108,113	105,880	10.76%	10.49%	791,700	812,400
1980	18,139	19,505	220,786	256,984	15.58%	17.67%	1,280,500	1,261,100
1985	27,329	42,480	213,146	361,626	14.94%	13.24%	1,802,500	1,886,200
1989	51,751	58,316	363,807	493,652	14.79%	12.98%	2,912,200	3,002,000

註 : 1) * : 북한제외

資料 : U.N.,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증가율은 이들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60년 각각 0.14%와 3.2%에서 1989년에는 각각 2.1%와 8.2%로 대폭 상승하게 하였다.

반면 소련과 북한은 1960~1989기간중 후술할 그들의 교역특성을 반영하여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 0.27%에서 각각 1.6%, 0.08%로 하락하는 양상을 경험하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1979년 이후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그 비중은 동기간 중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교역량의 추이는 이들 5개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60년 8.9%에서 1989년 13.9%로 증가하게 하였는데, 이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교역신장세에 기인함은 물론이다.

이외 〈表 1〉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여야 할 것은 세계 자유무역의 주도국인 美國이 1980년대 이후 이전의 무역흑자국 위치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반전한 반면 日本은 1980년대에 들어 견고한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시 일본이 점유할 위치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미국의 세계교역상의 비중은 동기간중 14%내외에서 안정된 상태를 보여왔다.

〈표 2〉 東北아시아地域의 域內交易의 比重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1980	1985	1989	1980	1985	1989
중 국	동 북 아	4,700	7,915	11,791	5,683	17,191	13,854
	세 계	25.91%	28.96%	22.78%	29.14%	40.47%	23.76%
한 국	동 북 아	3,183	5,289	15,175	5,938	8,222	19,709
	세 계	17,505	30,283	62,371	22,292	31,136	61,556
북 한	동 북 아	441	1,026	1,326	826	1,615	2,107
	세 계	1,642	1,285	1,950	1,712	1,900	2,840
소 련	동 북 아	1,949	3,267	6,198	3,056	4,962	6,454
	세 계	32,426	34,705	40,042	38,789	44,653	57,193
일 본	동 북 아	13,674	22,770	28,233	9,440	12,293	27,298
	세 계	129,812	175,683	274,597	140,524	129,480	209,635
동 북 아 전 체	동 북 아	23,947	40,267	62,719	25,123	44,283	69,422
	세 계	199,524	269,285	430,711	222,822	249,649	389,540

資料: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表 1〉에서는 동북아시아 5개국의 지난 30년간 전체교역량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나,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국가간의 역내 및 역외 교역상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表 2〉는 1980~1989기간중 이들 국가간의 交易樣相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表 2〉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첫째, 한국·북한·중국 등은 域內貿易에 상당한 수준의 의존하고 있는 반면 소련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밑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될 것이지만, 소련과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낮은 의존도는 대체로 소련이 여전히 유럽국가라는 사실과 일본의 상대적으로 큰 세계교역량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 대한 교역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높은 역내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북한은 그 교역이 거의 소련, 일본, 중국 등에 폐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의존도(1989년 경우 거의 70%에 달함)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일본을 제외한 모든 역내국가가 동기기간중 域內貿易赤字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일

〈表 3〉 韓國의 輸出 構造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1985	1986	1987	1988	1989
일 본	4,546 (15.00)	5,426 (15.60)	8,437 (17.84)	12,004(19.78)	13,489 (21.63)
북 한	—	—	—	—	—
소 련	59.7 (0.19)	49.9 (0.14)	67.2 (0.14)	111.6 (0.18)	207.7 (0.33)
중 국	683 (2.25)	668 (1.92)	813 (1.72)	1,809 (2.98)	1,438 (2.31)
미 국	10,789 (35.62)	13,920 (40.00)	18,382 (38.86)	21,478 (35.40)	20,987 (33.65)
E C	3,255 (10.75)	4,315 (12.40)	6,600 (13.95)	8,134 (13.40)	7,441 (11.93)
세 계	30,283(100)	34,792(100)	47,301(100)	60,679(100)	62,371(100)

(수입)

	1985	1986	1987	1988	1989
일 본	7,557 (24.27)	10,869 (34.25)	13,657 (33.29)	15,847 (30.59)	17,612 (28.61)
북 한	—	—	—	—	—
소 련	62.3 (0.20)	63.9 (0.20)	133.1 (0.32)	178.3 (0.34)	391.7 (0.64)
중 국	607 (1.95)	615 (1.94)	673 (1.64)	1,387 (2.68)	1,705 (2.77)
미 국	6,554 (21.10)	6,548 (20.63)	8,761 (21.36)	12,706 (24.52)	15,824 (25.71)
E C	2,971 (9.54)	3,321 (10.47)	4,641 (11.25)	6,046 (11.69)	6,678 (10.85)
세 계	31,136(100)	31,734(100)	41,025(100)	51,812(100)	61,556(100)

資料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본만이 연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우기 일본은 전체교역에 있어 107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경험한 1980년에도 역내 교역에 있어서는 42억여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시현하였고, 1989년도에도 90억여달러에 달하는 역내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表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전반적인 무역흑자로 인한 대규모의 자본축적과 함께,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시 일본이 맡아야 할 역할과 의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이 지역내의 전체 교역량은 1980~1989기간중 연율 7.4%로 증가한 반면 역내 교역량은 연율 11.0%로 증가하여, 1980년 域內交易比重이 수입 11.3%, 수출 12.0%에서 1989년에는 각각 17.8%, 14.6%로 늘어났다. 이같은 역내교역비중은 후술할 부존자원분포에서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나, 1980~1989기간중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表 7〉⁽³⁾은 동북아시아 5국 각각의 교역상대국들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3) 〈表 3〉~〈表 7〉과 〈表 1〉~〈表 2〉상에서, 통계수치의 차이는 자료출처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특히 북한의 수치 차이는 상당히 누락될 경우도 많은바 북한에 대하여는 제 4장에서 다시 논 의할 것이다.

〈表 4〉 日本의 輸出入 構造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1985	1986	1987	1988	1989
한 국	7,159 (4.07)	10,557 (5.01)	13,344 (5.77)	15,442 (5.83)	16,491 (6.01)
북 한	249 (0.14)	185 (0.09)	216 (0.09)	239 (0.09)	196 (0.07)
소 련	2,772 (1.58)	3,178 (1.51)	2,587 (1.12)	3,131 (1.18)	3,069 (1.12)
중 국	12,590 (7.17)	9,936 (4.72)	8,337 (3.60)	9,486 (3.58)	8,477 (3.09)
미 국	66,684 (37.96)	81,926 (38.88)	85,017 (36.75)	90,245 (34.06)	93,954 (34.21)
E C	21,128 (12.03)	31,122 (14.77)	38,305 (16.56)	47,172 (17.80)	47,986 (17.48)
세 계	175,683(100)	210,718(100)	231,332(100)	264,961(100)	274,597(100)

(수입)

	1985	1986	1987	1988	1989
한 국	4,144 (3.20)	5,334 (4.18)	8,173 (5.42)	11,827 (6.31)	12,931 (6.17)
북 한	177 (0.14)	170 (0.13)	240 (0.16)	323 (0.17)	294 (0.14)
소 련	1,438 (1.11)	1,988 (1.56)	2,368 (1.57)	2,772 (1.48)	2,990 (1.43)
중 국	6,534 (5.05)	5,727 (4.49)	7,478 (4.96)	9,861 (5.26)	11,083 (5.29)
미 국	26,099 (20.16)	29,410 (23.04)	31,957 (21.18)	42,267 (22.54)	48,253 (23.02)
E C	9,371 (7.24)	14,173 (11.10)	17,862 (11.84)	24,163 (12.89)	28,137 (13.42)
세 계	129,480(100)	127,660(100)	150,907(100)	187,483(100)	209,635(100)

資料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것이다. 이들 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동북아시아국가들간의 교역이 2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같은 블록內의 交易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블록間의 交易이 아직도 거의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북한, 소련, 그리고 중국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연결되어 다른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일본만이 공산권 블록과의 교역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들 국가들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북한은 블록內의 交易에 집중하여온 양상이 현저하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극히 편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 북한의 교역을 보면 수출입의 40% 이상이 중국과 소련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은 거의 전무하여 그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일본과의 교역은 약 30% 달하고 있어 일본의 블록間 交易에서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총교역량의 절반이상이 일본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공산권 3국과의 교역은 3% 미만의 미미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 들어 활발한 북방정책으로 인해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중국과 소련에의 교역량은 수출이 7억 4천만달러, 수입이 6억 2천만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9년에 이르러서는 수출이 16억 5천만달러, 수입이 20억 9천만달러

〈表 5〉北韓의 輸出入 構造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1985	1986	1987	1988	1989
한국	—	—	—	—	—
일본	161.0 (25.93)	154.3 (23.74)	217.3 (28.63)	293.3 (33.31)	267.5 (34.63)
소련	—	642 (9.88)	717 (9.45)	882 (10.02)	891 (11.54)
중국	222.5 (35.84)	255.2 (39.27)	214.7 (28.30)	212.3 (24.11)	166.7 (21.58)
미국	0.5 (0.08)	—	—	—	—
EC	66.8 (10.76)	76.8 (11.82)	110.1 (14.51)	60.7 (6.89)	48.4 (6.27)
세계	620.9(100)	649.9(100)	758.9(100)	880.6(100)	772.4(100)

(수입)

	1985	1986	1987	1988	1989
한국	—	—	—	—	—
일본	274.3 (33.01)	203.7 (24.56)	237.6 (21.45)	262.7 (22.19)	215.8 (17.57)
소련	—	1,079 (13.01)	1,329 (12.00)	1,736 (14.66)	1,492 (12.12)
중국	263.0 (31.65)	280.8 (33.85)	304.8 (27.51)	379.7 (32.07)	398.5 (32.37)
미국	—	—	—	0.1 (0.01)	—
EC	60.3 (7.26)	80.2 (9.67)	201.0 (18.14)	109.8 (9.27)	138.7 (11.27)
세계	831.0(100)	829.5(100)	1,107.8(100)	1,184.1(100)	1,231.2(100)

資料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로 급증하여, 4년의 기간중 교역량은 그 총액에 있어 거의 3배에 이르는 급진장세를 보이고 있다. 表에서 누락된 북한과의 교역을 포함하면, 한국의 이들 공산권국가와의 교역량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동북아시아내 공산권국가들과의 교역은 日本 總輸出入量の 觀點에서 보면 5% 내외의 낮은 수준이나 去來當事國의 觀點에서 보면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즉 북한의 수출입구조는 일본에 4분의 1정도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은 1989년에 들어서 3분의 1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총교역량의 20% 내외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나 1985~1989년 기간중 일본에의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감소추세는 동기간중 점증하는 한국과의 교역비중과 비교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련의 경우는 일본과의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6~7% 수준이나 소련이 최근까지 유럽국가로 존재하여온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교역량이라 하겠다. 소련의 EC권과의 교역은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 3〉~〈表 7〉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美國과의 交易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에서 30% 이상, 수입에서 2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이

〈表 6〉 中國의 輸出入 構造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1985	1986	1987	1988	1989
한 국	607 (2.22)	615 (1.96)	673 (1.71)	1,387 (2.91)	1,705 (3.29)
일 본	6,091 (22.29)	5,079 (16.19)	6,392 (16.19)	8,046 (16.88)	8,180 (15.08)
북 한	239 (0.87)	255 (0.81)	277 (0.70)	345 (0.72)	362 (0.69)
소 련	1,037 (3.79)	1,230 (3.92)	1,247 (3.15)	1,476 (3.90)	1,699 (3.28)
미 국	2,336 (8.55)	2,633 (8.39)	3,030 (7.67)	3,399 (7.13)	3,988 (7.70)
E C	2,283 (8.35)	4,017 (12.80)	3,916 (9.92)	4,746 (9.95)	4,720 (9.12)
세 계	27,329(100)	31,367(100)	39,464(100)	47,663(100)	51,751(100)

(수입)

	1985	1986	1987	1988	1989
한 국	683 (1.61)	668 (1.54)	813 (1.88)	1,809 (3.27)	1,438 (2.46)
일 본	15,178 (35.72)	12,463 (28.81)	10,087 (23.33)	11,062 (19.98)	10,105 (17.32)
북 한	245 (0.57)	281 (0.64)	236 (0.54)	234 (0.42)	183 (0.31)
소 련	1,017 (2.39)	1,472 (3.40)	1,291 (2.98)	1,802 (3.25)	1,945 (3.33)
미 국	5,199 (12.23)	4,718 (10.90)	4,836 (11.18)	6,633 (11.98)	6,918 (11.86)
E C	6,151 (14.47)	7,757 (17.93)	7,274 (16.82)	8,176 (14.77)	8,777 (15.05)
세 계	42,480(100)	43,247(100)	43,222(100)	55,352(100)	58,316(100)

資料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들 뒤를 이어 총교역량의 약 10%를 미국과 거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미국에의 수출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중 거의 2배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미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은 교역량의 10% 미만이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소련의 민주화와 더불어 미국과의 교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북한만이 그 간의 정치적 대립을 반영하여 미국과의 교역이 전무한 실정이다.

동북아시아 5국과 미국과의 교역량을 요약한 것이 〈表 8〉이다. 주로 일본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큰 교역규모와 미국에의 높은 의존을 반영하여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은 동기간중 약 30%에 달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총수입액중 15%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개방압력을 반영하여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동북아시아지역과의 교역에서 미국은 1987년 약 600억달러의 적자를 정점으로 하여 1989년에는 약 44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무역수지적자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사실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블럭내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나 블럭간의 교역은 공산권의 폐쇄적인 교역정책으

〈表 7〉 蘇聯의 輸出入 構造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1985	1986	1987	1988	1989
한 국	62.3 (0.18)	63.9 (0.19)	133.1 (0.37)	178.3 (0.47)	391.7 (0.98)
일 본	1,307 (3.77)	1,807 (5.34)	2,152 (5.90)	2,520 (6.70)	2,718 (6.79)
북 한	—	1,079 (3.19)	1,329 (3.65)	1,736 (4.62)	1,492 (3.73)
중 국	924 (2.66)	1,338 (3.95)	1,173 (3.22)	1,638 (4.36)	1,768 (4.42)
미 국	402 (1.16)	551 (1.63)	427 (1.17)	592 (1.57)	713 (1.78)
E C	14,736 (42.46)	12,028 (35.54)	13,653 (37.46)	13,791 (36.68)	14,957 (27.35)
세 계	34,705(100)	33,844(100)	36,448(100)	37,598(100)	40,042(100)

(수입)

	1985	1986	1987	1988	1989
한 국	59.7 (0.13)	49.9 (0.12)	67.2 (0.15)	111.6 (0.22)	207.7 (0.36)
일 본	3,049 (6.83)	3,496 (8.14)	2,845 (5.66)	3,444 (6.94)	3,376 (5.90)
북 한	—	642 (1.49)	717 (1.63)	882 (1.78)	891 (1.56)
중 국	1,141 (2.56)	1,353 (3.15)	1,372 (3.13)	1,623 (3.27)	1,869 (3.26)
미 국	2,665 (5.97)	1,372 (3.19)	1,628 (3.71)	3,033 (6.11)	4,698 (8.21)
E C	10,454 (23.41)	10,658 (24.81)	11,714 (27.70)	13,133 (26.46)	15,145 (26.48)
세 계	44,653(100)	42,951(100)	43,888(100)	49,635(100)	57,193(100)

資料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1990).

〈表 8〉 東北아시아 國家의 美國과의 交易

(단위 : 백만달러, %)

	1985	1986	1987	1988	1989
수 출	80,212 29.86%	99,030 31.80%	106,856 30.07%	115,714 28.10%	119,642 27.85%
총 수 출	268,621	311,371	355,304	411,782	429,533
수 입	40,517 16.30%	42,048 17.06%	47,182 16.84%	64,639 18.71%	75,693 19.51%
총 수 입	248,580	246,422	280,150	345,466	387,931
무역수지	39,695	56,982	59,674	51,075	43,949

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 지역내에서 일본의 경제적 지위는 그들의 무역수지흑자에 근거한 자본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앞으로 동북아시아 경제권이 형성될 때 일본의 역할과 의무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셋째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인바,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뒤에도 이같은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여 미국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제권 형성의 논의는 위험한 것이라 하겠다.

3. 韓國・日本・美國間の 交易推移

지난 30년간 한국·일본·미국간의 교역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동북아시아경제권이 형성되었을 때, 이들 5국간의 분업체계가 각각 보유한 부존자원의 상태와 관련하여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3국중 한국의 경험은 중국과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물론 한·미·일 3국간의 과거경험이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국가로 남아 있는 한 완벽하게 이들 국가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여타 많은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과 유사한 국제분업체계에의 편입과 변천을 밟아온 사실을 생각하면 대체적인 基本構圖는 이러한 분석에서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분석은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이후 이 지역과 미국간의 보다 넓은 의미의 분업체계에서의 방향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분담된 역할에 대한 시사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表 9〉와 〈表 10〉은 한국과 일본의 1960~1990 기간중 다른 2국에 대한 수출입추이를 총량적으로 보여준다. 제 2 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동기간중 한국과 일본의 교역신장세는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한국은 수출이 연율 25.7%, 수입이 연율 17.7%로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30년 기간동안 수출이 약 2000배, 수입은 약 200배에 달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일본도 수출입 모두가 연율 13~14%에 달하는 증가세를 지속하여 수출이 약 70배, 수입은 약 50배의 규모상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물론 한국의 기하학적인 배수증가는 1960년의 교역규모가 매우 적었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대미국 수출증가율은 28.6%, 수입증가율은 16.1%로써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반면 대일본 수출증가율은 21.5%, 수입증가율은 18.6%에 달해 그간 한국의 수출이 일본시장에 비해 미국시장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 크게 증대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 한국의 대미국수출은 전체수출중 11.0%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 47%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체적으로 30% 내외에 머물러 지난 25년동안 미국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존재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일본은 1960년 한국의 총수출액중 62%를 차지하여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었으나 그후 일본의 비중은 계속 낮아져 지난 10여년간 15~2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왔다. 수입의 경우는 1960년 대미수입이 총수입액중 38.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그 비중이 줄어들어 1980년대에 들어서

〈表 9〉 韓國의 對美國・對日本 輸出入 (단위 : 백만달러, %)

	대 미 국		대 일 본		총 액		대미국비율		대일본비율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60	3.6	133.7	20.2	70.4	32.8	343.5	10.98	38.92	61.59	20.49
1965	61.7	182.3	44.0	166.6	175.1	463.4	35.24	39.34	25.13	35.95
1970	395.2	584.7	234.3	809.3	835.2	1,984.0	47.32	29.47	28.05	40.79
1975	1,536.3	1,881.1	1,292.9	2,433.6	5,081.0	7,274.4	30.24	25.86	25.45	33.45
1980	4,606.6	4,890.2	3,039.3	5,857.8	17,504.9	22,291.7	26.32	21.94	17.36	26.28
1985	10,754.1	6,489.3	4,543.4	7,560.4	30,283.1	31,135.7	35.51	20.84	15.00	24.28
1990	19,360.0	16,942.5	12,637.9	18,573.9	65,015.7	69,843.7	29.78	24.26	19.44	26.59

資料 : U.N.

〈表 10〉 日本의 對美國・對韓國 輸出入 (단위 : 백만달러, %)

	대 미 국		대 한 국		총 액		대미국비율		대한국비율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60	1,106.6	1,554.2	100.1	18.6	4,055	4,491	27.29	34.61	2.47	0.41
1965	2,510.0	2,366.4	180.3	41.3	8,452	8,169	29.70	28.97	2.13	0.51
1970	6,015.5	5,564.7	818.2	229.0	19,318	18,881	31.14	29.47	4.24	1.21
1975	11,259.9	11,610.8	2,248.1	1,309.8	55,840	57,880	20.16	20.06	4.03	2.26
1980	31,648.6	24,447.5	5,363.9	2,994.8	129,812	140,524	24.38	17.40	4.13	2.13
1985	66,038.0	25,885.4	7,122.2	4,091.9	175,683	129,480	37.59	19.99	4.05	3.16
1990	90,332.0	52,369.0	17,457.0	11,707.0	287,581	235,386	31.41	22.25	6.07	4.97

資料 : U.N.

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1960년 총수입액의 20.5%에 불과하던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960년대를 통해 급격히 늘어났으나 1970년 40.8%를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다시 줄어들어 1980년대에는 25% 내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60년 한국의 최대수입국이 미국, 최대수출국이 일본이었던 것이 1970년대 이후부터는 최대수입국이 일본, 최대수출국이 미국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 1980년대 이후 對美貿易收支黑字를 시현하였으나 일본과의 교역은 慢性的인 收支赤字를 경험하여 왔다.

일본의 미국 및 한국과의 수출입 추이를 보면, 먼저 수출에 있어서는 양국에 대한 비중이 공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수입비중에 있어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어났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들어온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대미국 수출비중은 1960년 27.3%이던 것이 1985년에는 37.6%에 이르렀다가 최근 미국의 개방압력 및 적극적인 수지조정정책으로 인해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60년 2.5%

에서 1990년 6.1%로 계속 늘어왔다. 다른 한편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960년 0.4%에 불과하던 것이 그간 한국의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1990년에는 약 5%로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는 1960년 일본의 총수입중 34.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래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80년대에 들어서는 20%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의 개방압력 덕분에 다시 2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위의 총량적 분석은 한국과 일본의 교역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나, 이들 국가간에 지난 30년동안 일어났던 國際分業體系上的 變貌는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경제권이 형성될 때 이 지역 5국간에 이루어져야 할 국제분업체계에 있어 각국이 점유하여야 할 위치와, 그 이후 발전과정에서 변모되어야 할 각국의 위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지는 못한다. 이를 위해 <表 11>~<表 13>은 같은 기간중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간의 교역내역별 추이를 보여준다.

먼저 1972~1989 기간중 한국과 미국간의 交易商品推移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상품구조를 보면 1972년 총수출액중 33.4%를 차지하던 공업용원료가 1989년에는 불과 8.9%로 거의 4분의 1 가까이 줄었으나, 동기간중 자본재는 11.3%에서 31.1%로 거의 3배, 내구소비재는 14.9%에서 26.6%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그 비중은 크지 않으나 식료 및 직접소비재의 비중은 1972년 2.3%에서 1989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2%로 감소되었고, 비내구소비재의 비중은 1970년대 약 40% 수준이었으나 1989년에는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대체로 안정된 수준이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에 있어 식료품 및 직접소비재중 과일 및 채소는 1972년 1.1%에서 1989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업용원료중 합판을 포함한 목재 및 코오크제품도 동기간중 19%에서 거의 전무하게 (0.09%) 된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또한 금속원료가 동기간중 그 비중이 약 10%에서 4%로 크게 줄어들었고 섬유관련 원료도 2.8%에서 2.0%로 줄어드는 등 모든 공업용원료는 그 비중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화학공업원료와 고무제품원료가 비록 절대적 규모는 작으나 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2년 불과 1백만달러 내외였다가 1989년에는 각각 64억여달러와 54.8억달러로 급증한 자본재와 내구소비재의 신장세는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즉 1972년 1백 5십만달러에 불과하여 수출비중이 2%에 지나지 않던 일반기계는 1989년에는 11.3%로 그 비중을 높

〈表 11〉 韓國과 美國의 商品別 輸出入變化 推移

(1) 韓國에서 美國으로의 輸出

(단위 : 백만달러)

	1972	1975	1980	1985	1989
총 액	759.0	1,536.3	4,606.6	10,754.1	20,639.0
식료 및 직접소비재	17.1	58.6	123.2	145.7	240.8
공업용원료	253.1	347.6	888.0	1,667.2	1,840.7
조원료	5.1	20.7	30.5	16.7	44.3
광물성원료	0	0	0.2	132.7	56.3
섬유원료	21.2	31.7	117.7	279.2	410.6
금 속	75.6	119.5	527.2	1,010.3	896.4
기타원료	151.2	175.7	212.4	228.3	433.1
자본재	85.4	223.7	1,059.1	2,881.2	6,421.6
일반기계	15.5	31.3	140.9	600.6	2,321.5
전기기기	59.5	157.8	408.7	1,062.5	2,839.2
수송기기	3.8	14.8	350.5	912.2	795.8
비내구소비재	290.3	625.6	1,675.2	3,829.1	6,648.2
섬유제품	2.8	6.7	33.0	100.2	96.5
의 류	239.6	449.2	1,047.6	2,285.2	3,735.9
신발류	41.0	116.9	476.4	1,135.5	2,265.2
기타비내구소비재	6.9	52.8	118.2	308.2	550.6
내구소비재	113.0	180.7	860.2	2,231.0	5,487.7
TV 수상기	4.9	18.8	184.8	338.8	256.7
라디오수신기	7.3	23.1	97.4	249.4	456.0
전구류	3.4	3.7	18.4	37.6	48.3
축음기, 녹음기등	5.4	26.2	38.1	248.6	727.2
인조프라스틱제품	3.1	65.7	25.0	33.8	157.4
완구 및 운동구	9.7	30.3	165.9	446.6	600.0
기타내구소비재	79.2	12.9	330.6	876.2	3,242.1

여 금액상으로 23억여달러에 이르렀고, 채 4백만달러가 되지 않던 수송기기는 거의 8억 달러에 달해 동기간중 그 비중은 0.5%에서 3.9%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전기기기도 1972년 약 6천만달러에서 1989년 28억여달러로 늘어나 동기간중 그 비중이 7.8%에서 13.8%로 배증되었다. 내구소비재는 품목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동기간중 대체로 그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 다만 축음기와 녹음기 등 음향기기와 피아노의 비중은 계속 증가한 반면 TV와 완구 및 운동구는 1980년 초반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한편 한국의 미국으로부터의 輸入商品構造의 변이를 보면, 1972~1989 기간중 식료품 및 직접소비재가 총수입중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식료품 및 직접소비재의 수

(2) 韓國에서 美國으로의 輸出

(단위 : %)

	1972	1975	1980	1985	1989
총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 및 직진소비재	2.25	3.81	2.67	1.35	1.17
공업용원료	33.35	22.63	19.28	15.50	8.92
조원료	0.67	1.35	0.66	0.16	0.21
광물성원료	0.00	0.00	0.00	1.23	0.27
섬유원료	2.79	2.06	2.56	2.60	1.99
금속	9.96	7.78	11.44	9.39	4.34
기타원료	19.92	11.44	4.61	2.12	2.10
자본재	11.25	14.56	22.99	26.79	31.11
일반기계	2.04	2.04	3.06	5.58	11.25
전기기기	7.84	10.27	8.87	9.88	13.76
수송기기	0.50	0.96	7.61	8.48	3.86
비내구소비재	38.25	40.72	36.37	35.61	32.21
섬유제품	0.37	0.44	0.72	0.93	0.47
의류	31.57	29.24	22.74	21.25	18.10
신발류	5.40	7.61	10.34	10.56	10.98
기타비내구소비재	0.91	3.44	2.57	2.87	2.67
내구소비재	14.89	11.76	18.67	20.75	26.59
TV 수상기	0.65	1.22	4.01	3.15	1.24
타디오수신기	0.96	1.50	2.11	2.32	2.21
전구류	0.45	0.24	0.40	0.35	0.23
축음기, 녹음기 등	0.71	1.71	0.83	2.31	3.52
인조프라스틱제품	0.41	4.28	0.54	0.31	0.76
완구 및 운동구	1.28	1.97	3.60	4.15	2.91
기타내구소비재	10.43	0.84	7.18	8.15	15.71

입비중은 1972년 총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1.1%였으나 1989년 10.5%로 절감하였고 자본재의 수입비중은 동기간중 일반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23.6%에서 43.3%로 배증하였다. 이 기간중 공업용원료의 미국으로부터 수입도 그 비중이 33.7%에서 41.9%로 늘어났으나 198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비내구소비재 및 내구소비재의 신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1972년 각각 0.4%와 1.28%에 불과하던 비내구소비재와 내구소비재의 수입비중은 1989년에 들어 각각 1.5% 및 2.7%로 늘어나 2배이상 증가하였는데, 이같은 증가의 대부분이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급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의 지난 30년간의 交易構造 推移를 살펴보기로 한다. <表 12>를 보면 동기간중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주로 중화학공업제품이 대종을 이루며 계속 증가

(3) 韓國의 美國으로부터의 輸入

(단위 : 백만달러)

	1972	1975	1980	1985	1989
총 액	647.2	181.1	4,890.2	6,489.3	15,910.7
식료 및 직접소비재	265.9	621.2	1,187.1	803.3	1,676.2
공업용원료	218.1	728.8	2,320.3	2,987.8	6,669.8
조원료	161.6	527.8	1,487.2	1,459.7	3,375.4
광물성원료	1.4	22.5	94.2	420.2	365.0
화학품	25.2	109.6	421.6	720.1	1,053.2
금 속	7.5	13.7	123.7	117.3	481.8
기타원료	22.4	55.2	193.6	270.5	1,394.4
자본재	152.5	500.7	1,287.3	2,526.9	6,896.1
일반기계	52.4	162.4	409.2	861.1	2,995.2
전기기계	69.0	172.5	433.2	1,012.6	2,261.8
수송기계	26.1	152.8	390.2	522.7	1,282.7
정밀기계	4.5	11.4	45.1	118.2	265.7
비내구소비재	2.4	3.4	20.4	28.4	237.4
내구소비재	8.3	25.5	75.1	142.9	431.2
승용차(2륜차포함)	2.8	5.0	4.0	6.8	67.4
가정용구	1.4	2.6	7.1	31.3	83.9
악기, 녹음기 등	0.8	3.0	11.4	23.7	79.9
기타내구소비재	3.3	14.9	52.6	81.1	200.0

(4) 韓國의 美國으로부터의 輸入

(단위 : %)

	1972	1975	1980	1985	1989
총 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 및 직접소비재	41.08	33.02	24.28	12.38	10.54
공업용원료	33.70	38.74	47.45	46.04	41.92
조원료	24.97	28.06	30.41	22.49	21.21
광물성원료	0.22	1.20	1.93	6.48	2.29
화학품	3.89	5.83	8.62	11.10	6.62
금 속	1.16	0.73	2.53	1.81	3.03
기타원료	3.46	2.93	3.96	4.17	8.76
자본재	23.56	26.62	26.32	38.94	43.34
일반기계	8.10	8.63	8.37	13.27	18.83
전기기계	10.66	9.17	8.86	15.60	14.22
수송기계	4.03	8.12	7.98	8.05	8.06
정밀기계	0.70	0.61	0.92	1.82	1.67
비내구소비재	0.37	0.18	0.42	0.44	1.49
내구소비재	1.28	1.36	1.54	2.20	2.71
승용차(2륜차포함)	0.43	0.27	0.08	0.10	0.42
가정용구	0.22	0.14	0.15	0.48	0.53
악기, 녹음기 등	0.12	0.16	0.23	0.37	0.50
기타내구소비재	0.51	0.79	1.08	1.25	1.26

資料 : 무역협회, 『무역동향』 및 『무역통계』

〈表 12〉 韓國과 日本의 商品別 輸出入變化 推移

(1) 日本의 韓國으로의 輸出

(단위 : 백만달러)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총액	100.1	180.3	818.2	2,247.7	5,368.3	7,097.2	17,457.2
식료품	0.9	0.3	111.7	3.5	82.0	13.3	54.5
원연료	4.7	7.2	27.9	117.0	249.1	213.3	793.4
경공업제품	n. a.	42.0	181.7	393.3	735.8	950.4	1,903.6
섬유류	8.2	36.5	150.9	242.6	314.4	377.5	709.2
비금속광물제품	3.9	1.0	6.7	29.0	97.4	164.6	361.4
기타경공업제품	n. a.	4.5	24.1	121.7	324.0	408.2	832.9
중화학공업제품	76.6	128.9	484.3	1,683.1	4,177.9	5,775.7	14,408.3
화학품	33.1	51.4	88.0	437.7	838.0	1,002.4	2,437.6
금속품	6.7	28.5	100.0	348.6	1,015.1	1,052.3	1,921.9
기계기구	36.8	49.0	296.4	896.9	2,324.9	3,721.0	10,048.8
일반기계	5.2	25.6	142.0	410.9	1,055.8	1,777.5	4,973.1
전기기계	9.0	12.2	72.3	293.8	905.2	1,503.4	4,063.5
수송기계	21.3	7.2	69.4	155.1	202.5	218.3	487.4
정밀기계	1.2	3.3	12.6	37.2	160.8	221.8	524.7
재수출·특수취급품	6.2	2.0	12.7	50.8	123.6	144.5	297.5

(2) 日本의 韓國으로의 輸出

(단위 :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0.9	0.2	13.7	0.2	1.5	0.2	0.3
원연료	4.7	4.0	3.4	5.2	4.6	3.0	4.5
경공업제품	n. a.	23.3	22.2	17.5	13.7	13.4	10.9
섬유류	8.2	20.2	18.4	10.8	5.9	5.3	4.1
비금속광물제품	3.9	0.6	0.8	1.3	1.8	2.3	2.1
기타경공업제품	n. a.	2.5	2.9	5.4	6.0	5.8	4.8
중화학공업제품	76.5	71.5	59.2	74.9	77.8	81.4	82.5
화학품	33.1	28.5	10.8	19.5	15.6	14.1	14.0
금속품	6.7	15.8	12.2	15.5	18.9	14.8	11.0
기계기구	36.8	27.2	36.2	39.9	43.3	52.4	57.6
일반기계	5.2	14.2	17.4	18.3	19.7	25.0	28.5
전기기계	9.0	6.8	8.8	13.1	16.9	21.2	23.3
수송기계	21.3	4.0	8.5	6.9	3.8	3.1	2.8
정밀기계	1.2	1.8	1.5	1.7	3.0	3.1	3.0
재수출·특수취급품	6.2	1.1	1.6	2.3	2.3	2.0	1.7

(3) 日本의 韓國으로부터의 輸入**

(단위 : 백만달러)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총액	18.6	41.3	229.0	1,308.0	2,996.3	4,091.9	11,706.7
식료품	6.6	15.4	41.6	347.1	584.5	783.9	1,479.0
원료품	9.0	18.4	78.2	112.3	188.8	144.7	320.7
섬유원료	—	—	—	34.3	32.3	18.3	3.6
금속원료	—	—	—	21.2	26.7	14.5	46.2
기타원료품	—	—	—	56.8	129.9	111.9	270.9
광물성원료	1.5	2.7	9.1	45.8	2.2	528.4	470.0
가공제품	(1.3)	(4.8)	(100.1)	790.2	2,181.7	2,571.5	9,258.9
화학품	—	—	—	30.8	236.4	202.3	570.1
기계기구	—	—	6.0	168.7	359.8	498.8	2,103.0
섬유제품	—	2.7	55.1	418.7	879.7	938.4	2,978.0
기타제품	—	—	—	172.0	706.1	942.0	3,607.8
재수입·특수취급품	—	—	—	12.6	39.2	63.5	178.1

(4) 日本의 韓國으로부터의 輸入**

(단위 :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5.5	37.3	18.2	26.5	19.5	19.2	12.6
원료품	48.4	44.6	34.1	8.6	6.3	3.5	2.7
섬유원료	—	—	—	2.6	1.1	0.4	0.0
금속원료	—	—	—	1.6	0.9	0.4	0.4
기타원료품	—	—	—	4.3	4.3	2.7	2.3
광물성원료	8.1	6.5	4.0	3.5	0.1	12.9	4.0
가공제품	(7.0)	(11.6)	(43.7)	60.4	72.8	62.8	79.1
화학품	—	—	—	2.4	7.9	4.9	4.9
기계기구	—	—	2.6	12.9	12.0	12.2	18.0
섬유제품	—	6.5	24.1	32.0	29.4	22.9	25.4
기타제품	—	—	—	13.1	23.6	23.0	30.8
재수입·특수취급품	—	—	—	1.0	1.3	1.6	1.5

註: 1) *: 경공업제품은 기타경공업제품과 기타 항목의 합계치임.

2)**: 1960, 1965, 1970년의 ()안의 수치는 총액에서 식료품, 원료품, 광물성원료를 제한 나머지의 총액이다.

資料: 日本通商産業省.

하여 왔음에 반해 경공업제품은 계속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60년대 식료품과 원료품이 대중을 이루었으나 동기간중 급격히 감소하여 왔다. 그리고 공업제품수입은 그 비중이 10배가 넘는 급신장을 보여 1970년대 후반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중 대중을 이루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表 13〉 日本과 美國의 商品別 輸出入變化 推移

(1) 日本에서 美國으로 輸出

(단위 : 백만달러)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총 액	1,082.9	2,479.2	5,939.8	11,148.6	31,367.3	65,277.6	90,322.4
식료품	73.1	84.4	135.4	164.7	245.3	400.6	275.8
원연료	22.1	19.7	25.8	29.6	77.7	125.3	198.0
경공업제품	633.5	906.3	1,407.7	1,160.8	2,663.7	5,610.3	6,871.8
섬유류	287.7	441.2	596.6	432.2	592.8	1,073.6	769.7
비금속광물제품	56.5	109.1	147.9	180.2	464.4	766.3	857.6
기타경공업제품	289.3	385.9	663.2	548.3	1,606.5	3,770.3	5,244.6
중화학공업제품	354.0	1,445.7	4,298.1	9,508.0	27,956.0	58,488.5	81,476.2
화학품	16.9	46.0	160.3	345.5	767.4	1,407.5	2,473.4
금속품	150.4	692.2	1,296.3	2,498.5	4,167.5	4,619.1	4,284.5
기계기구	186.7	707.5	2,841.5	6,664.0	23,021.1	52,461.9	74,718.3
일반기계	35.1	91.5	408.4	952.9	3,368.3	10,198.4	21,258.4
전기기계	106.4	376.8	1,328.0	1,992.4	5,134.6	14,987.3	19,435.6
수송기계	8.5	157.6	914.9	3,239.0	12,820.3	24,010.5	29,592.5
정밀기계	36.7	81.5	190.2	479.7	1,697.9	3,265.8	4,431.8
재수출·특수취급품	0.2	23.2	72.8	285.4	424.7	653.0	1,500.4

(2) 日本에서 美國으로 輸出

(단위 :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총 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8	3.4	2.3	1.5	0.8	0.6	0.3
원연료	2.0	0.8	0.4	0.3	0.2	0.2	0.2
경공업제품	58.5	36.6	23.7	10.4	8.5	8.6	7.6
섬유류	26.6	17.8	10.0	3.9	1.9	1.6	0.9
비금속광물제품	5.2	4.4	2.5	1.6	1.5	1.2	0.9
기타경공업제품	26.7	15.6	11.2	4.9	5.1	5.8	5.8
중화학공업제품	32.7	58.3	72.4	85.3	89.1	89.6	90.2
화학품	1.6	1.9	2.7	3.1	2.4	2.2	2.7
금속품	13.9	27.9	21.8	22.4	13.3	7.1	4.7
기계기구	17.2	28.5	47.8	59.8	73.4	80.4	82.7
일반기계	3.2	3.7	6.9	8.5	10.7	15.6	23.5
전기기계	9.8	15.2	22.4	17.9	16.4	23.0	21.5
수송기계	0.8	6.4	15.4	29.1	40.9	36.8	32.8
정밀기계	3.4	3.3	3.2	4.3	5.4	5.0	4.9
재수출·특수취급품	0.0	0.9	1.2	2.6	1.4	1.0	1.7

(3) 日本의 美國으로부터의 輸入

(단위 : 백만달러)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총액	1,545.3	2,366.1	5,559.6	11,608.1	24,408.0	25,793.0	52,368.6
식료품	122.2	562.7	812.2	2,488.9	5,170.7	5,084.9	10,525.9
원료품	731.6	857.8	1,649.2	3,144.2	6,382.8	4,509.2	7,703.0
섬유원료	—	139.4	83.2	281.5	600.5	442.4	676.1
금속원료	—	189.6	430.9	367.4	1,187.0	693.6	1,046.7
기타원료품	—	528.9	1,135.1	2,495.3	4,595.3	3,373.2	5,980.2
광물성원료	178.0	205.1	760.8	1,908.6	2,097.8	1,956.1	1,656.5
가공제품	516.6	734.9	2,303.8	4,011.2	10,607.4	13,581.0	31,386.6
화학품	148.5	176.7	400.9	775.2	2,536.1	3,396.5	5,157.0
기계기구	267.0	416.2	1,411.6	2,195.0	5,015.3	7,544.8	17,894.7
기타제품	101.1	142.0	491.3	1,041.0	3,055.9	2,639.7	8,334.9
재수입·특수취급품	-3.1	5.6	33.6	55.1	149.3	661.8	1,096.5

(4) 日本의 美國으로부터의 輸入

(단위 :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7.9	23.8	14.6	21.4	21.2	19.7	20.1
원료품	47.3	36.3	29.7	27.1	26.2	17.5	14.7
섬유원료	—	5.9	1.5	2.4	2.5	1.7	1.3
금속원료	—	8.0	7.8	3.2	4.9	2.7	2.0
기타원료품	—	22.4	20.4	21.5	18.8	13.1	11.4
광물성원료	11.5	8.7	13.7	16.4	8.6	7.6	3.2
가공제품	33.4	31.1	41.4	34.6	43.5	52.7	59.9
화학품	9.6	7.5	7.2	6.7	10.4	13.2	9.8
기계기구	17.3	17.6	25.4	18.9	20.5	29.3	34.2
기타제품	6.5	6.0	8.8	9.0	12.5	10.2	15.9
재수입·특수취급품	-0.2	0.2	0.6	0.5	0.6	2.6	2.1

註: 1) *: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하였음. 즉 경공업제품의 총액은 '기타경공업제품' 항목을 원래의 '잡품' 항목을 대상으로 사용하여 섬유류와 비금속광물, 기타경공업제품은 합산한 것이다.

2)**: 이후의 분류에 맞추어 항목을 조증하였다.

資料: 日本通商産業省.

이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중 식료품과 원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1990년 기간중 5% 내외에서 머물렀고 경공업제품의 비중은 1965년 23.3%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10.9%으로 반감하였다. 특히 섬유류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여 1965~1990년 기간중 그 비중이 20.2%에서 이의 5분의 1 수준인 4.1%로 하락하였다. 반면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주종을 이루는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은

1960년대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197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결과 1970년을 제외하고는 전기간을 통해 70~8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화학제품의 비중은 1960년 33.1%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14%로 줄어들었고 금속제품의 비중은 1960~1970년대를 통해 늘어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화학공업제품중 주종을 이루는 기계·기구의 비중은 거의 전기간을 통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총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반기계는 1960년 5백여만달러에 불과하여 그 비중은 5.2%였으나 30년 기간중 약 1000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여 1990년에는 약 50억달러에 이르러 그 비중이 28.5%에 이르렀고, 전기기계도 동기간중 약 550배 늘어나 1990년 23.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밀기계수출도 비록 그 규모는 적으나 지난 30년 기간동안 약 440배 늘어나 1990년에는 그 비중이 1960년에 비해 거의 3배 늘어난 3%에 달하였다. 다만 화학제품만이 1960~1990년 기간중 33.1%에서 14.0%로 그 비중이 급락하였다.

한편,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輸入構造 推移에서는 동기간중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식료품의 경우 1960년 35.5%에 달했던 그 비중이 1990년에는 12.6%로 줄었으며, 1960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였던 원료품은 1990년에는 그의 20분의 1에 불과한 2.7%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반면 1960년 7.0%에 불과하였던 가공제품의 비중은 동기간중 10배가 넘는 79.1%로 급신장을 하였다. 이중 섬유제품은 1975년 32.0%라는 높은 비중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동기간말에는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1960년대에는 거의 전무하던 화학제품 및 기계제품, 그리고 기타제품 등은 1990년 각각 4.9%, 18.0%, 그리고 30.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그간의 일본의 한국으로부터 수입 상품구조 또는 한국의 일본으로의 수출상품구조의 변천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끝으로 동기간중 일본과 미국간의 交易構造 變移를 보면 식료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의 교역구조의 변이와 유사하다. 즉 1960~1990년 기간중 일본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제품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원료품의 비중이 대폭 줄고 가공제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다만 식료품 수입의 비중이 동기간중 5분의 1이라는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이 한국과의 교역구조에 비해 가장 다른 점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미국으로의 수출상품들중 1960년 그 비중이 26.6%에 달하였던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제품의 비중은 총수출액의 절반이 넘는 58.5%였으나 그후 꾸준히 줄어 1990년에는 1960년의 8분의 1에 불과한 7.6%를 기록하였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은 1960년 32.7%에서 1990년 90.2%가 되어 약 3배의 증가를 시현하였다. 중화학공업제품중에서도 기계·기구의 비중은 17.2%였던 1960년에 비해 1990년에는 거의 5배에 이르는 82.7%에 달해 일본의 대미수출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한 반면, 화학제품은 동기간중 2~3% 수준의 안정세를 보였고 금속제품은 1965년 27.9%의 비중을 시현한 후 계속 그 중요성이 줄어들어 1990년에는 불과 4.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계·기구중에서는 정밀기계를 제외한 일반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 모두가 1960~1990년 기간중 급진장세를 보였다. 일반기계의 비중은 1960년 3.2%에서 1990년에는 약 7배에 달하는 23.5%로, 전기기계의 비중은 9.8%에서 2배가 조금 넘는 21.5%로 늘어났고, 수송기계의 비중은 0.8%에서 40배가 넘는 32.8%에 이룸으로써 일본의 대미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품목들의 1990년 수출액을 보면, 수송기계 약 300억달러, 전기기계 및 일반기계는 각각 200억달러 내외를 기록하여 총수출액 900여억달러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한편 1960년에는 그 비중이 6.8%였던 식료품의 비중은 1990년에 이르러서는 불과 0.3%에 달해 그 중요성은 거의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중 가장 눈에 띄는 양상은 식료품의 수입이 1965년 이후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같이 높은 식료품의 비중은 밑에서 논의할,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시 미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원료 및 광물성원료의 경우는 1960년에는 각각 47.3%와 11.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에 이르러서는 각각의 3분의 1 수준인 14.7%와 3.2%로 그쳐 그간 일본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짐작케 한다. 반면 가공제품의 경우는 1960년 33.4%의 비중에서 계속 늘어나 1990년에는 59.9%에 달해 일본의 대미수입에 있어 대종을 이루었다. 이중 화학제품의 경우 10%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비중을 보였으나 기계·기구의 경우는 1990년의 비중이 34.2%에 달해 1960년 수준에 비하여 배증하였다.

이상 살펴본 지난 30년 기간동안에 일어났던 한·미·일 3국간의 國際分業體系上的 變遷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록 한·미·일 3국간의 교역상품구조는 계속 변화하여 왔으나 미국의 한·일에 대한 비중은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미국의 비중은 향후 다소 감소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한·일 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다소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교역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일본이 점유를 포함한 경공업제품에 절대적 우위를 누려 한·미 양국에 수출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기계·기기구

문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제품에 특화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제품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는 있으나 미·일에 비해서는 아직 상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어 여전히 그 비중이 높고, 중화학공업제품은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는 있으나 일본의 그것에 비해 아직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같은 한·미·일 교역상의 두 가지 특징은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示唆한다. 첫째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공산품 수출선이면서 또한 일본에 있어서는 식료품, 한국에 있어서는 원료품의 중요한 수입선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동북아시아경제권을 형성할 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수출시장을 잃지 않고 미국으로부터의 주된 수입상품인 식료품과 원료품 공급을 동북아시아지역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다소 시차는 두었으나 향후 보다 경제적으로 될 주력 수출상품구조는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시 한국과 일본의 위치설정과 함께 어떻게 조정(coordination)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 문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및 정책방향은 제 4장에서 북한·중국·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지역국들의 교역구조 및 부존자원 분포를 분석한 후 제 5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4. 東北아시아國家들의 交易推移

앞서 제 3장에서는 지난 30년 기간동안 한국·미국·일본 3국간의 교역구조의 변이를 살펴 보았다. 본장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 5국의 교역구조 및 그 추이를 공산권인 중국·북한·소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이들 3국의 관련자료는 극히 부분적이고, 또한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자료의 미비는 본 연구의 한계를 처음부터 규정하는 것이나, 사용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최대한의 추리를 할 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체적인 수출입상품구조는 앞서 본 한·미·일 3국간의 교역구조와 대동소이하므로 본장에서는 반복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분석의 초점인 중국·북한·소련의 교역구조는 자료상의 문제로 인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두 블럭간의 교역을 오랫동안 행하여 온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같이 일본과의 교역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資料의 偏倚(bias)는 이들 국가들의 賦存資源分佈를 고려할 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한국의 대공산권교역은 아직 제한된 수준이고

〈表 14〉 東北아시아 域內貿易의 商品構造(輸出) (단위 : 천달러, %)

구 분	한국~동북아	일본~동북아	중국~동북아	소련~동북아	북한~동북아	동 북 아 총 계
식품 및 산동물	1,662,513 (13.05)	80,221 (0.28)	2,246,869 (18.51)	365,250 (6.13)	118,778 (9.14)	4,473,631 (7.31)
음료 및 담배	31,769 (0.25)	6,191 (0.02)	25,389 (0.21)	1,599 (0.03)	460 (0.04)	65,409 (0.11)
비식용원자재	379,283 (2.98)	612,732 (2.11)	1,791,203 (14.76)	975,147 (16.37)	58,080 (4.47)	3,816,444 (6.24)
광물성연료, 운할유 및 관련제품	442,537 (3.47)	152,686 (0.53)	2,384,694 (19.65)	1,017,891 (17.09)	67,831 (5.22)	4,065,638 (6.6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1,284 (0.01)	17,873 (0.06)	17,230 (0.14)	2,387 (0.04)	0 (0.00)	38,775 (0.06)
화학물관련제품	562,347 (4.41)	3,433,298 (11.82)	668,526 (5.51)	584,835 (9.82)	16,613 (1.28)	5,265,619 (8.61)
제조별제조제품	3,512,349 (27.56)	8,192,902 (28.20)	2,431,007 (20.03)	2,051,026 (34.44)	415,594 (31.96)	16,602,878 (27.13)
기계 및 운수장비	1,979,939 (15.54)	14,244,390 (49.03)	330,531 (2.72)	757,965 (12.73)	29,510 (2.27)	17,342,336 (28.34)
기타 제조제품	4,030,482 (31.63)	1,659,690 (5.71)	1,871,770 (15.42)	172,686 (2.90)	591,081 (45.46)	8,325,710 (13.6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품·취급물	141,250 (1.11)	649,451 (2.24)	371,493 (3.06)	27,074 (0.45)	2,265 (0.17)	1,191,533 (1.95)
합 계	12,743,750 (100.00)	29,049,436 (100.00)	12,138,712 (100.00)	5,955,860 (100.00)	1,300,213 (100.00)	61,187,973 (100.00)

資料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또한 그 역사가 짧아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이들 국가들간의 교역 구조를 분석한 뒤에 다루어질 것이다.

〈表 14〉~〈表 15〉는 제 2 장에서 살펴본 동북아시아지역 각국의 1989년 域內交易量을 商品別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表를 분석할 때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는 이들 역내 수출입상품구조는 구성국가들의 전체적인 수출입구조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지역상의 특성으로 인한 영향이 이들 表에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域內 比較 優位는 간접적으로 시사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 둘째는 구성국가의 교역 규모에 의한 規模效果이다. 즉 동북아시아지역 5국을 교역량의 규모에 따라 배열하면 일본·한국·중국·소련·북한의 순서인데, 이 중 한·일·중의 교역규모는 전체의 약85%를 차지하여, 상품별 각국의 점유율만을 볼 경우 각국의 역내 비교우위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表는 동북아시아지역 5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분석과 앞으로의 교역방향에 대하여 많은 시사를 한다.

먼저 각국의 역내무역에서의 수출입상품구조를 보면, 한국의 경우 기계 및 운수장비를 포함한 공업제품수출의 비중이 거의 80%에 달하고 식품수출이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

〈表 15〉 東北아시아 域內貿易의 商品構造(輸入)

(단위 : 천달러, %)

구 분	한국~동북아	일본~동북아	중국~동북아	소련~동북아	북한~동북아	동 북 아 총 계
식품 및 산동물	241,012 (1.22)	3,821,626 (15.80)	132,751 (0.92)	737,707 (10.83)	87,897 (4.08)	4,920,994 (7.31)
음료 및 담배	7,877 (0.04)	41,967 (0.17)	14,653 (0.10)	5,263 (0.08)	2,190 (0.10)	71,950 (0.11)
비식용원자재	592,099 (3.01)	2,525,601 (10.44)	615,609 (4.26)	407,267 (5.98)	57,512 (2.67)	4,198,088 (6.24)
광물성연료, 유탄유 및 관련제품	465,834 (2.36)	3,198,598 (13.22)	147,270 (1.02)	18,665 (0.27)	641,836 (29.80)	4,472,202 (6.6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15,397 (0.08)	13,251 (0.05)	2,120 (0.01)	10,986 (0.16)	897 (0.04)	42,652 (0.06)
화학물관련제품	2,459,127 (12.48)	1,005,157 (4.15)	1,790,010 (12.39)	484,321 (7.11)	53,566 (2.49)	5,792,181 (8.61)
재료별제조제품	4,670,146 (23.71)	5,343,436 (22.09)	5,258,138 (36.39)	2,312,376 (33.94)	679,059 (31.53)	18,263,166 (27.13)
기계 및 운수장비	9,746,026 (49.48)	1,807,700 (7.47)	5,583,610 (38.64)	1,536,202 (22.55)	403,033 (18.71)	19,076,570 (28.34)
기타 제조제품	1,288,102 (6.54)	5,906,287 (24.41)	479,165 (3.32)	1,275,658 (18.72)	209,070 (9.71)	9,158,281 (13.6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품·취급물	213,027 (1.08)	528,880 (2.19)	425,254 (2.94)	124,711 (1.83)	18,814 (0.87)	1,310,686 (1.95)
합 계	19,698,648 (100.00)	24,192,502 (100.00)	14,448,580 (100.00)	6,813,166 (100.00)	2,153,875 (100.00)	67,306,771 (100.00)

資料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고 있다. 한국의 수입구조에 있어서는 기계 및 운수장비가 약 50%의 비중을 점하는 등 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이 90여%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모든 수출상품이 공업제품이고 수입은 식료품이 약 16%, 원재료가 약 24%, 그외 공업제품이 약 60%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교역중 수출상품구조는 식료품이 약 19%, 원재료가 약 34%, 그리고 공업제품이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제품중에서도 중화학공업제품비중은 10% 미만의 낮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식료품 및 원자재의 비중은 거의 미미한 반면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공업제품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이다. 소련의 역내수출에 있어 식료품과 원재료가 50%를 약간 넘는 비중을 점하고 있고 공업제품이 다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수출은 식료품과 원료품이 각각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중화학공업제품을 제외한 공업제품의 비중이 약 80%에 달하고 있다. 수입상품구조는 식료품의 비중이 4%, 원재료의 비중이 30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원유등 연료수입에 기인한다. 한편 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은 약 60%에 이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분석은 각국의 전반적인 경제구조에 기반을 둔 수출입구조

를 정확하게 보여 준다기보다는 地域上的 特性과 비교적 짧은 블럭간의 交易歷史로 인한 편기를 상당히 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의를 상기하면서 위의 분석을 요약 하면, 1989년 동북아시아국가들의 역내교역에 있어서 公業제품수출의 비중은 일본·한국·북한·소련·중국의 순서였으며 식료품 및 원료품의 수출의 비중은 그 역순이었다. 한편 식료품 및 원료품의 수입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일본·북한·소련·한국·중국의 순서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의 직접적인 해석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상품별 수출입에 있어 각국의 비중을 보면, 먼저 식품 및 산동물의 경우는 중국이 22억 4,687만달러를 수출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 거래액의 50%를 점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한국(37%), 소련(8%), 북한(3%), 일본(2%)의 순서였다. 동품목의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이 38억 2,163만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소련(13%), 한국(5%), 중국(3%), 북한(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음료 및 담배에서는 3,177만달러를 수출하여 전지역의 49%를 점하고 있는 한국에 이어, 중국(39%), 일본(9%), 소련(2%), 북한(1%)의 순서였고, 수입에 있어서는 4,197만달러를 수입하여 전체의 58%를 점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중국(20%), 한국(11%), 소련(7%), 북한(3%)의 순서였다.

비식용원재료에서는 최대 수출국이 중국으로 17억 9,120만달러를 수출하여, 최대의 점유율(47%)을 갖고 있고 뒤를 이어 소련(26%), 일본(16%), 한국(10%), 북한(2%) 순서였다. 수입에서는 25억 2,560만달러를 수입한 일본에 이어 중국(15%), 한국(14%), 소련(10%), 북한(1%)의 순서였다.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에서는 중국이 23억 8,469만달러로 59%를 점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소련(25%), 한국(11%), 일본(4%), 북한(2%) 순서였으며, 수입에서는 일본이 31억 9,860만달러로 전체의 72%를 점하고 있고 그 뒤를 북한(14%), 한국(10%), 중국(3%), 소련(1%)이 잇고 있다. 한편 역내교역에서 거의 미미한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에서는 일본이 1,787만달러로 최대의 수출국(46%)이며 중국(44%), 소련(6%), 한국(3%), 북한(0%)의 순서였고 수입에 있어서는 1,540만달러를 수입하여 36%를 점하고 있는 한국에 이어 일본(31%), 소련(26%), 중국(5%), 북한(2%) 순서였다.

화학물 및 관련제품에서는 일본이 34억 3,330만달러(65%)로 최대 수출국이고 그 뒤를 이어 중국(13%), 한국(11%), 소련(11%), 북한(0%)의 순이며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 24억 5,913만달러로 전체의 72%를 점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31%), 일본(17%), 소련(8%), 북한(1%)의 순서였다. 재료별 제조품에서는 일본이 81억 9,290만달러로 전체의 49%를 점하고 있고 한국(21%), 중국(15%), 소련(12%), 북한(3%)이 그 뒤를 잇고 있

다. 수입에서는 일본이 53억 4,344만달러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그 뒤를 중국(29%), 한국(25%), 소련(13%), 북한(4%)이 잇고 있다. 기계 및 운수장비에서는 일본이 142억 4,439만달러로(82%) 단연 최대 수출국이고 그 뒤를 한국(11%), 소련(4%), 중국(2%) 등이 뒤따르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한국이 97억 4,603만달러(51%)로 최대이며 그 뒤를 중국(27%), 일본(9%), 소련(8%), 북한(2%)이 따르고 있다.

기타 제조제품에서는 한국이 40억 3,048만달러로(48%)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22%), 일본(20%), 북한(7%), 소련(2%)의 순서였다. 수입에서는 일본이 59억 629만달러(64%)로 최대이며, 그 뒤를 한국(14%), 소련(14%), 중국(5%), 북한(2%)이 잇고 있다.

전체 교역에서의 품목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기계 및 운수장비가 28.3%를 점한 173억 4,234만달러가 거래되고 그 뒤를 이어 재료별 제조제품은 166억 288만달러가 거래되어 27%를 점하였다. 기타 제조제품은 83억 2,571만달러 거래되어 13.6%를 점하였으며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음료 및 담배는 각각 0.1% 내외의 미미한 거래품목이었다.

이상의 분석은 앞에서 우려하였던 대로 規模變數의 영향이 상당하다. 즉 북한은 5국들중 가장 낮은 교역비중을 반영하여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입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의 높은 교역액을 반영하여 기계 및 운수장비, 화학물관련 제품 등에서 최대의 수입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역규모로부터의 영향을 감안하여 위의 분석을 요약하면 대체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일본이 단연 앞서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소련·중국의 순서이고 경공업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한국·중국·일본·북한·소련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음식료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소련·일본·북한 등이 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재료수출에 있어서는 중국과 소련이 비교우위가 있고 한국 및 일본은 주된 수입국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6〉~〈表 18〉은 〈表 14〉~〈表 15〉가 가질 수 있는 편기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일본과 공산권 3국간의 교역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제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국가간의 교역은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내의 교역은 활발한 반면 블록간의 교역은 미약하였다. 단지 일본만이 이들 공산권과의 교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이들 3국과의 교역구조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表 16〉~〈表 18〉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앞서 본 한·미·일 3국간의 교역추이와는 달리, 교역구조의 변천이 상대적으로 들쭉날쭉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공산권 국가들

〈表 16〉 日本의 對北韓 輸出入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수출)						
총 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0.0	0.7	0.0	0.3	0.7	1.9
원연료	4.2	2.1	0.7	5.6	2.8	1.6
경공업품	10.6	26.3	12.5	19.8	21.2	32.3
섬 유	7.1	15.6	2.5	7.9	5.6	15.9
중화학공업품	85.1	65.9	84.4	71.9	70.3	59.5
화학품	17.6	16.0	9.7	9.1	10.0	10.1
금속품	43.4	3.3	15.3	15.6	13.7	9.3
기계기구	24.1	46.6	59.5	47.2	46.6	40.1
재수출, 특수취급품	0.1	4.9	2.4	2.4	5.0	4.7
(수입)						
총 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9	8.6	11.8	19.9	26.0	32.0
원료품	54.0	58.5	37.8	25.6	10.8	9.0
광물성원료	1.4	4.0	1.8	5.5	6.5	8.4
가공제품	37.7	28.9	48.4	48.2	38.7	50.1
재수입, 특수취급품	0.0	0.0	0.2	0.8	17.9	0.5

이 필요한 경우에만 교역을 하는 求償貿易形態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약간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추세는 명확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일본과 북한간의 교역에 있어서의 특징은 일본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중 식료품과 가공제품의 수입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원료품의 수입비중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의 북한에 대한 수출은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65년 6.9%에 불과하였던 식료품 수입비중은 1990년 32.0% 차지하여 약 5배의 증가를 보여, 1965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온 가공제품과 함께 일본의 대북한 수입의 대종을 이루었다. 반면 원료품의 비중은 1965~1990년 기간중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약 9%에 달하였다. 광물성원료는 동기간중 계속 늘어나 1990년 8.4%의 비중을 점하였다.

일본의 대북한 수출은 1965년 약 10%에 머물렀던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1990년 그의 3배인 32.3%를 기록하여 북한의 경제난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주된 수출상품인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은 1965년 85.5%에서 1990년 약 60%로 대폭 줄었는바 이 또한 북한의 급박한 경제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지 경제구조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表 17〉 日本의 對中國 輸出入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수출)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0.0	0.0	0.0	0.0	0.2	0.4
원연료	0.4	1.3	0.8	0.5	0.7	1.8
경공업품	13.7	4.9	8.2	12.2	7.1	18.3
섬유	11.3	3.7	5.4	8.0	3.8	9.9
중화학공업품	85.5	93.8	90.3	86.1	91.0	78.0
화학품	37.8	24.3	20.1	10.7	5.7	12.3
금속품	20.0	48.5	39.4	33.2	28.3	19.5
기계기구	27.8	21.0	30.8	42.3	57.0	46.2
재수출, 특수취급품	0.3	0.1	0.7	1.2	1.1	1.5
(수입)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6.2	26.4	13.2	10.9	14.4	16.1
원료품	38.8	45.9	16.2	11.6	12.8	9.0
광물성연료	4.1	2.5	49.9	55.0	45.8	24.2
가공제품	0.0	24.9	20.0	22.1	24.7	50.2
재수입, 특수취급품	0.0	0.1	0.7	0.5	2.3	0.5

수 있다. 식료품과 원료품의 수출비중은 일본의 수출구조상의 특성에 따라 미미하다.

일본의 중국과의 교역구조는 수출에 있어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이고, 수입에 있어서는 식료품 및 원료품의 비중이 기간중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고 가공제품의 비중은 197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나 왔음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출의 경우를 보면 식료품과 원연료의 비중은 거의 미미하여 일본의 교역구조상의 특성을 잘 시현하고 있다. 경공업제품의 대중국수출에서의 비중은 다소의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1970년 5%가 채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 약 18%에 달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의 제품의 비중은 1990년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기간을 통해 80~90%에 달하고 있어 일본의 전반적인 수출구조와 일치하고 있다. 이종 기계·기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 1990년 약 절반에 이르고 있고 1970년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던 화학제품과 금속제품은 1980년대에 들어서는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을 보면 1965년 7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였던 식료품과 원료품이 동기간중 계속 줄어 1990년에는 약 2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광물성 연료의 경우는 1980

〈表 18〉 日本의 對蘇聯 輸出入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수출)						
총 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0.2	0.1	0.0	0.0	0.0	0.4
원연료	3.6	1.5	1.0	1.9	3.0	2.1
경공업품	9.6	36.2	14.2	12.4	9.2	10.5
섬유	15.8	30.5	10.4	8.8	6.1	5.7
중화학공업품	73.2	60.1	82.2	81.8	81.6	81.2
화학품	14.0	12.0	10.8	12.1	9.4	10.7
금속품	21.8	16.2	36.1	38.3	34.1	18.3
기계기구	37.5	31.9	35.3	31.4	38.2	52.3
일반기계	13.0	20.4	19.9	31.4	22.8	26.1
전기기계	2.5	4.2	5.2	4.7	7.0	18.1
수송기계	20.2	5.9	9.2	7.5	7.2	5.2
정밀기계	1.8	1.5	1.0	0.0	1.2	2.9
재수출, 특수취급품	1.5	2.2	2.5	3.9	6.1	5.8
(수입)						
총 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0	2.1	2.8	4.0	7.1	9.6
원료품	33.9	56.6	57.6	47.3	32.3	19.6
광물성연료	32.6	15.8	19.6	15.7	24.6	18.8
가공제품	31.4	25.1	19.8	28.1	24.7	44.0
화학품	3.7	2.5	3.7	2.9	3.9	1.9
기계기구	1.0	1.2	0.5	2.9	0.8	0.5
섬유제품	0.0	0.0	0.0	0.0	0.0	0.0
금속품	0.0	0.0	0.0	0.0	0.0	38.1
재수입, 특수취급품	0.0	0.4	0.2	4.9	11.3	8.0

년 절반이 넘는 5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계속 줄어 1990년에는 24.2%의 비중을 점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 품목의 비중은 1990년에도 여전히 일본의 대중국 총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것이었다. 반면 가공품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1990년에는 50.2%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화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이같은 급증세는 대체로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음을 表에서 볼 수 있다.

끝으로 일본의 대소련 수출입구조는 일본의 전반적인 교역구조상의 특징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수출에 있어서 식료품과 원연료품의 비중은 전기간을 통해 미미하고, 경공업제품의 비중은 1970년 36.2%를 정점으로 하여 계속 감소하여 1990년 약 10%에 불과하

였다. 반면 중화학공업제품은 1965년 73%의 비중을 시현한 이래 1975년 이후 계속 80%의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중 기계·기구류의 수출비중은 동기간중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절반이 넘어섰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기계와 전기기계가 1960~1990년 기간중 계속 비중을 증가시켜 1990년에는 각각 26.1%와 18.1%의 비중을 점하고 있고 수송기계의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한편 1965년 1.5%에 불과하였던 정밀기계의 비중은 1990년 약 6%로 대폭 늘어났다.

일본의 대소련 수입구조도 일본의 교역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바, 식료품의 경우 전기간을 통해 늘어나 1990년에는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원료품은 1970년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1990년에는 약 20%에 달하였다. 광물성원료의 경우는 동기간중 다소의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1990년에 들어서서는 약 20%를 하회하고 있다. 이들 세품목의 합계는 총수입액의 약 40%를 점해 일본의 대소련 수입에서의 이들 품목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1965년 31.4%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가공제품의 경우는 1975년 20% 미만의 최저점을 기록한 뒤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44%를 점하였다. 이같은 증가세는 중국과 비슷하게 1980년대 후반에 실현되었으며 이중 기계기구의 비중의 급신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분석은 <表 14>~<表 15>가 가질 수 있는 편기를 감안한 앞서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즉 일본은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에 있어 단연 앞서 있고 소련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경공업제품에서는 중국이 근래에 들어 상당한 위치로 부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공산권 3국에 있어서 식료품 및 원료품이 대일본수출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결론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이들 공산권 3국과의 교역구조를 나타내는 <表 19>~<表 21>을 보기로 하자. 이들 表를 분석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것은 한국의 이들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외교상의 문제로 인해 상당히 왜곡 내지는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아 그 信憑性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한국의 대중국 교역상황을 보면 비록 짧은 시계열이나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다. 즉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중 농수산물과 광물성생산물 등 식료품 내지 원료제품의 수출이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견직물을 포함한 섬유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1989년 40%, 1990년 28.3%) 반면,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은 미미하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섬유제품이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전기전자제품이 20% 내외, 철강 및 금속과 화학제품

〈表 19〉 對中國 主要品目別 輸出入現況 (단위: 백만달러, %)

주요 품목	수			출		
	1989	1990	1991(1~3)	1989	1990	1991(1~8)
농수산물	22.1 (1.5)	19.0 (1.2)	5.6 (1.3)	347.4 (20.4)	410.7 (18.1)	658.8 (30.6)
광물성생산물	4.6 (0.3)	2.7 (0.2)	0.6 (0.1)	348.5 (20.4)	592.6 (26.1)	233.7 (10.9)
화학제품	190.8 (13.3)	180.3 (11.6)	68.0 (16.1)	99.9 (5.9)	212.0 (9.3)	477.1 (22.2)
섬유류	531.7 (37.0)	663.3 (42.7)	174.3 (41.2)	677.8 (40.0)	642.6 (28.3)	404.5 (18.8)
철강·금속	210.0 (14.6)	166.8 (10.7)	36.2 (8.5)	115.2 (6.8)	238.1 (10.5)	260.4 (12.1)
기계류	76.7 (5.3)	52.8 (3.4)	14.3 (3.4)	11.8 (0.7)	26.4 (1.2)	45.2 (2.1)
전기·전자제품	289.4 (20.1)	291.3 (18.8)	78.0 (18.4)	6.6 (0.4)	17.1 (0.8)	27.8 (1.3)
기타	112.5 (7.8)	176.5 (11.4)	46.3 (10.9)	97.4 (5.7)	128.6 (5.7)	43.8 (2.0)
총계	1,437.6	1,552.8	423.1	1,704.5	2,268.1	2,149.4

資料: 關稅廳, 홍콩정청.

이 각각 10%를 상회하는 비중을 점하고 있다. 반면 1차상품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한편 한국의 대소련 수출입구조를 보면 한국의 주된 수출품목으로서 전자·전기제품(1989년 11.8%, 1990년 29.9%), 섬유제품 및 신발류(1989년 31.7%, 1990년 17.1%), 선박수리(1989년 19.4%, 1990년 34.8%)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련의 대한국 수출에서의 주된 품목을 보면 수산물, 광산물 등 일차상품이 1989~1990년 3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철강 및 금속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화학제품도 20%를 약간 하회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대북한 교역실태를 보면 한국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따른 쌀수출로 인한 식료품수출이 약간 있을 뿐이고 거의 모든 수출이 가공제품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거의 모두가 경공업제품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식료품과 광물성원료 및 원료품이 수출의 대종이고 약간의 가공제품이 있을 뿐이다. 최근에 들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한국과 북한과의 교역구조는 이같은 현재의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공산권 3국과의 교역분석과 마찬가지로 앞서의 결론을 확인하여 준다. 한국은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공제품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반면 공산권 3국은 원료품 및 식료품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중화학공업제품에서는 소련과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가공제품중 하급상품

〈表 20〉 對蘇 主要品目別 輸出入現況

(단위: 백만달러, %)

(수출)

년 도	1989		1990		1991(1~8)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화 학 공 업 제 품	13.7	6.6	20.6	4	15.8	6
섬 유 류	53.4	25.7	80	15.4	41	15.6
신 발	12.5	6	8.7	1.7	8.1	3.1
철 강 · 금 속	40.8	19.6	35.4	6.8	33.9	19.6
전 기 · 전 자	24.6	11.8	155.3	29.9	73.7	28.1
기 계	15.2	7.3	22.9	4.4	29.7	11.3
선 박	40.3	19.4	180.9	34.8	35.8	13.7
기 타	7.2	3.5	15.3	2.9	23.9	9.1
계	207.7	100	519.1	100	261.9	100

(수입)

년 도	1989		1990		1991(1~8)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수 산 물	63.9	16.3	59.6	16.1	103.4	27.2
광 산 물	55.3	14.1	64.9	17.6	18.6	4.9
화 학 공 업 제 품	67.6	17.3	66.6	18	51.7	13.6
섬 유 류	15.8	4	11.3	3.1	9.7	2.5
철 강 · 금 속	143.4	36.6	132.4	35.8	161.5	42.5
기 계	5.4	1.4	5.4	1.5	7.3	0.2
기 타	40.3	10.2	29.5	8	28.2	7.4
계	391.7	100	369.7	100	380.4	100

資料: 商工部.

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동북아시아 5국의 교역구조는 이들 국가간에 존재하는 賦存資源分布의 상이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지역 자원분포의 특징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 있는바, (4) 이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시 이들 국가간의 교역이 더욱 급속히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장에서의 분석과 제 3장의 한·미·일 교역구조분석에 의거하여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전망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4)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경영기술, 중국과 북한은 노동력과 광물자원, 소련은 극동지역의 에너지, 광물, 수산, 삼림 등 거의 무한한 자연자원이라고 하는 부존자원의 상호보완적인 분포는 이들 국가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호혜적인 국제분업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노재봉(1991)과 김세원(1985)을 참조.

〈表 21〉 韓國의 對北韓 輸出入

(단위 : 천달러)

품 목	수 출		수 입		
	1988. 10~1991. 9	1991. 1~1991. 9	1989. 11~1989. 12	1990	1991. 1~1991. 9
식 료 품	1,760	1,750	1,100	8,295	25,881
원 료 품	—	—	1,479	1,122	1,438
광물성원료	—	—	14,768	4,442	72,676
가 공 제 품	15,849	11,059	5,458	5,991	13,904
화학제품	7,151	7,151	—	680	2,011
전기제품	440	440	—	—	—
섬유제품	3,699	1,180	—	—	—
기타제품	4,559	2,288	5,458	5,311	11,893
기 타	—	—	467	504	8,066
계	17,609	12,089	23,272	20,354	121,965

資料 : 商工部.

5. 結 論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의 분포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실로 막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같이 큰 경제적 잠재력은 그간 이 지역내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에 의해 활발히 개발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 이들 장애요인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제거됨에 따라 경제협력의 구체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⁵⁾ 하지만 아직도 슬하게 존재하고 있는 정치·외교·군사적 장애요인들은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實現時期를 예측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당분간 무역거래라는 間接的 手段을 통해 활발히 추구될 수밖에 없다. 즉 무역거래를 통한 상호보완적 자원의 개발은 존재하는 정치·외교·군사적 장애요인하에서 이 지역내의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이다. 최근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역내교역량은 이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장차 점진적으로 정치·군사·외교적 제약들이 제거됨에 따라 역내 무역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고 이는 다시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같이 미래에 다가올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있어서, 특히 무역거래에 대해 우리가 취하여야 할 基本態度는 다음과 같다. 첫째, 偏狹한 地域主義는 지양하여야 한다. 이 지역의 5국 중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향유하여 온 국가들이

(5) 최근 두만강 유역개발논의가 대표적이다.

므로 지역주의로 인한 역외국가들과의 마찰을 감수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을 백안시하는 배타적인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정치·외교·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결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수출에 있어서 미국은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국 수출 비중도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일본의 대미국 수입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기술의 자본재는 동북아시아지역내에서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본과 한국의 대미국 자본재수출중 많은 부분이 중국·북한·소련 등의 역내국가들이 수입하기에는 한동안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내경제권이 형성되더라도 미국과 동북아시아경제권과의 국제분업체제상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원료품의 수입과 경공업제품의 수출에서, 일본의 경우 식료품의 수입과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에서 역내교역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치 않는 일방적 전환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미국을 배제하는 역내교역권을 강조할 때, 현재 일본과 미국간에 일어나고 있는 構造調整會議(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 Talks)와 같은 무역마찰을 즉각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시 日本의 올바른 位相設立은 미국과의 관계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은 그간 대규모의 수지흑자, 특히 역내교역에서의 지속적인 수지흑자를 통해 이 지역내의 국가들중 가장 큰 규모의 자본을 축적하였다. 또한 기술과 경영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선진된 수준이다. 이같은 일본의 부존자원상의 특징은 동북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있어 일본에 선도적인 역할을 부과할 것이다. 이 때 물론 일본은 과거의 패권주의적 독점 내지는 팽창주의는 당연히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위상설립에 연관하여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과거 역사로 인한 문화 및 정서적 민감성을 차치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일본과 한국은 공히 지역내의 공산권국가에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원료품을 수입하고자 할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바, 양국간의 교역구조상의 유사성은 많은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⁶⁾ 이같은 경쟁의 가능성은 한·일 양국간에 어떠한 형태로이든지 사전적 조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 경공업제품 및 중급자본재, 일본은 고급자본재 등 주력수출에서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6) 조중화(1991)는 일본과 한국의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의 수출경합도 지수가 1970~1980년대를 통해 거의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세제, 한국과 북한의 경우는 南北統一이라는 민족숙원인 동시에 미묘한 政治問題가 존재하는데, 한국은 이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무역정책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다소의 손실이 있더라도 한국은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민족 문제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국·일본·소련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교포들은 한반도의, 특히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한반도를 동북아시아경제권의 중심으로 만들 잠재력을 제공하는 인력자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들 교포들을 연계하는 교역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하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지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역내교역을 추구하여야 한다. 즉 이 지역의 상호보완적인 자원분포는 역내에서의 무역자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가늠케 한다. 그러나 법제계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요 산업이 극심한 국제경쟁에 시달리는 나라의 경우에는 보호주의 경향이 강하게 흐르고 있어 이들 국가간에는 무역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발전을 막고 동북아시아지역내 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상호간에 교환하고 이를 시정할 방법을 찾을 공통의 장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무역거래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경제권의 형성은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直接投資·共同開發 등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包括的인 經濟協力에 있어서의 환경문제, 도로·항만·철도 등의 수송문제, 정보·통신의 문제 등과 연관하여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우기 이 지역에서 아직도 상존하는 정치·외교·군사적 대립을 고려하면, 우리는 단기적인 정책자세보다는 長期的인 정책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긍정적 시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 880-6381

팩시 : (02) 888-4454

參 考 文 獻

- 김세원(1985) : 『국제경제질서』, 무역경영사.
- 노재봉(1991)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역협회 : 『무역동향』, 각호.
- 무역협회 : 『무역통계』, 각호.
- 조종하(1991) :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은행 : 『경제통계월보』, 각호.
- 姜英之(1991) : “環日本海經濟圏の形成と朝鮮半島,” 經濟セミナー.
- 藤間丈夫(1991) : 『動き始めた環日本海經濟圏』, 創知社.
- 山縣裕一郎(1989) : 『東アジア經濟圏 90年代を讀ゆ』, 東洋經濟新報社.
- 小川和男·小牧輝夫編(1991) : 『環日本海經濟圏』, 日本經濟新聞社.
- 日本通商産業省 : 『通商白書』, 各號.
- Gong, G. (1991):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Implications for the U.S. and U.S. Policy,” KIEP.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various issues.
- Noland, M. (1991): “The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1990s: Economic Outlook and Development Potential,” KIEP.
- Scalapino, R.(1991): “Political Economic Changes in Northeast Asia: The Prospects for Cooperation,” KIEP.
- U.N.: *Year 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various issues.